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33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5.1.5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C G/B Am7 C/G F A7/E Dm7 G7 C G/B Am7 C/G Fmaj7 G7 C

주님의성-령 지금 이곳 에 임-하 소 서 임하소 서

Am7 Em7 F G/F Em7 Am7 Dm7 G7 C Am7 F G7 C

할렐 루야 할-렐 루야 할 렐-루-야 할렐 루야

성서교독 요한계시록 21장 다같이

인도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성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도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도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도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도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인도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인도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도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같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주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기..... 사도행전 6:1-7.....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말씀묵상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하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말씀 새한글성경

1이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2그러자 그 열둘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 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 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그러니 한번 찾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일곱 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4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5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6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사용

올해 길목교회는 '새한글성경'을 예배중에 사용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인들을 위해 12년동안 번역한 성경입니다. 새로운 번역본을 통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성경통독

새한글성경으로 <마태복음> 성경통독을 시작합니다. 방식: 매주 월~토까지/ 하루에 1장 읽기

1.12 다음주 말씀권면

다음주 주일예배시, 박소명 목사님께서 말씀 권면해주시겠습니다.

1.19 오후 커피토크 - 양성문 집사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양성문 집사님을 초청해 커피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되세요.

점심식사 섬김

오늘은 천호림 목사님, 여성은 사모님 가정에서 점심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해주세요.

제직회

오늘 주일오전예배 후, 예배당에서 / 안간: 전정민 전도사 전임전도사 청빙

길목교회 성지순례

1.7 화요일로 성지순례 신청을 마감합니다. (현재 총25명)

2024년 길목교회 회계

작년 한해 우리 길목교회는 고아과부,나그네,레위인을 위해 약 800여만원, 비전사역(선교비, 사역비 등)에 15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생존이 아닌 사역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나눔과 채움의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예배장소를 위한 중보

교육부서가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목교회를 위해 새롭게 필요한 예배장소를 허락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